



농단협·농진청·농협, “양록산업 발전 가능성 공감”

농단협 회장단 등 양록산업 시찰 행사 가져

본회는 6월 25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단 및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관계자 등 30여명을 충북 영동 명천사슴농장(배소식 부회장)으로 초청하여 현장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양록산업 현실을 널리 알리고 국산 양록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농업계의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 주관 농업현장 간담회로 개최되었는데, 본회가 현장 및 식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준비된 것이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녹용 생산량의 80%를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지인 만큼 사슴키우기에 최적합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배려가 뒷받침된다면 양록대국으로의 빠른 성장을 자신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사슴농장 현장 간담회에서 농민단체장들은 ‘양록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행사였다’고 입을 모으고, 양록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명천사슴농장은 이날 성록 엘크 1 두를 절각, 현장에서 즉석 녹혈시음 기회를 제공했고, 점심식사로 는 사슴고기 불고기,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자체 개발한 '녹용와인'을 준비했으며, '사슴엑기스' 및 '녹용와인'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했다.

- 사진 앞줄 왼쪽부터 본회 배소식 부회장, 한사람 건너 정순희 생활개선중앙회장, 유동준 단미사료협회장, 박병국 ABS농업방송 대표이사, 최준구 농단협

회장, 김수근 본회 회장, 나남수 우리마늘양파지킴이운동본부 회장, 허인구 농림부 농촌인력과장, 윤병두 농촌진흥청 지원기획과장, 함병석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부부장.

- 사진 뒷줄 왼쪽 두번째 엄홍기 본회 부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한사람건너 정해운 양봉협회장, 구현희 농촌진흥청 지도관, 김석호 농림부 농촌인력과 사무관, 한사람 건너 성 락 본회 사무총장, 장세일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달의 한국양록**